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통합교육행정을 통한 지역교육현안 해결

통합교육추진단 출범 2년의 성과와 과제



경상남도
GYEONGNAM



Contents

I. 추진배경

지방자치-교육자치 이원적 구조
수도권 블랙홀과 지방 소멸 위기
민선7기 경남 도정 3대 핵심과제 "교육인재 특별도"

II. 통합교육 추진단 출범

2019 교육행정협의회
조직 및 기능
사진 / 언론보도 자료

III. 출범 2년의 성과

코로나19 공동 대응
공동협력사업
경남형 아이돌봄모델
지역혁신 플랫폼 교육청 참여
우수사례 선정

IV. 앞으로의 과제

추진한계(코로나19에 따른 지방재정여건 악화)
2021 교육행정협의회
통합교육행정의 시군 확산
요람에서 무덤까지



1. 추진배경

지방자치-교육자치 이원적 구조

국가



대학

지방대학 위기,
BK21, 대학혁신사업,
평생교육(대학)

지방



지방자치

평생교육(지자체),
다함께 돌봄,
지역아동센터,
농어촌마을 살리기



교육자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초등돌봄, 방과후 학교,
학교공간혁신,
폐교학교 관리,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적 구조를 하나로 통합**해
지역의 교육현안 해결과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 실현 필요

I. 추진배경

수도권 블랙홀과 지방소멸 위기

☑ 수도권 블랙홀 심화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와 균형발전 · 대한민국 지속성장 위협 위기에 직면

* '19년 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 초월 ('30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60% 인구 전망)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 1970~2070



문화일보

전국 시·군·구 46%가 인구감소로 '소멸 위험'

228곳중 105곳이 위험지수 수도권 포함 여주까지 포함 저출산·고령화·유출 3중고

하계 느낀 경북·전남 지자체와 국회 의원들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각 시·도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소멸위험 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현재 0.5 미만인 '소멸위험지역'은 105곳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소멸위험진입단계' (0.5 미만~0.2 이상)는 82곳이고, '소멸고(高)위험지역' (0.2 미만)은 23곳이다. 2014년 소멸위험진입단계가 76곳, 소멸고위험지역이 3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소멸위험 진입단계의 상당수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편입돼 상황이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년 소멸위험지역 중 도시 지역인 시(市) 단위는 11곳이었지만, 처음 늘어 현재 22개 시와 6개 자치구 등 28곳에 달한다. 올해는 수도권 시단 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경기 포천·여주 지역이 포함됐다. 이처럼 지방소멸위험지역이 늘어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사망률이 출생률

을 앞지른 데다 지방의 젊은이들이 수도권 대도시로 유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소멸위험이 수도권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무인=정우천·안동=박천학 기자

▶관련기사 8면

2020-11-16 (월) 001면

◆지방소멸위험지수=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나 눈 값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지표. 0.5 미만이면 가입 여성 인구가 고령자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이어서 인구감소가 불가피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0.2 미만은 '소멸고(高)위험지역'이다.

I. 추진배경

민선7기 경남 도정 3대 핵심과제 “교육인재 특별도”



청년특별도

청년이 돌아오고 찾아오며
머무는 청년특별도 조성



교육인재특별도

우수한 인재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길러내는 교육(인재)특별도 조성

1. 경남형 아이돌봄 모델 개발
2. 민관협업으로 아동 놀이공간 혁신사업 추진
3.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모델 개발
4.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
5. 도-대학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6.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혁신체계 구축
7. 방문스포츠팀 유치지원센터 설립·운영
8. 경남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동남권을 하나의 수도권,
메가시티 플랫폼으로 구축



혁신과 성장

3대 국정사업의 본격적 추진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육성의 가속화
중단 없는 경제·사회·도정 3대 혁신



체감하는 변화

소득 불평등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
쾌적하고 안전한 도민의 삶 보장
도민이 함께 누리고 잘 사는 따뜻한 복지

II. 통합교육추진단 출범

2019 교육행정협의회

1. 상설교육협의기구 설치 및 교육청 직원 파견

- 양기관의 통합교육행정 추진을 위하여 도는 통합교육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등 관계 공무원을 도에 파견한다.

(파견대상 : 장학관1, 교육행정5급1, 장학사2, 교육행정1)

- 양 기관은 통합교육추진단을 통하여 각종 교육정책을 조율하고, 그 결정을 상호 존중한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합의문

경상남도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양 기관'이라 함)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교육행정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상설교육협의기구 설치 및 교육청 직원 파견

- 양 기관의 통합교육행정 추진을 위하여 도는 통합교육추진단을 설치하고 교육청은 교육전문직원 등 관계 공무원을 도에 파견한다. (* 파견대상 : 장학관1, 교육행정5급1, 장학사2, 교육행정1)
- 양 기관은 통합교육추진단을 통하여 각종 교육정책을 조율하고 그 결정을 상호 존중한다.

2. 교과학점제 대비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공동추진

- 양 기관은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고교 대상 학습카페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공동 추진한다.

3.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 2022년부터 저소득층 급식비 재원분담을 일반학생 급식비와 같이 교육청·도·시군이 각각 3 : 3 : 4 비율로 분담한다. 단, 2020년도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고, 2021년도 분담률은 별도 협의한다.

4.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 양 기관은 특성학교 운영지원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협의한다.

5. 학교 소방시설 보강 등 소방안전대책 강화

- 교육청은 소방시설보강 소화기 설치 의무시설 관련 예산을 2020년에 반영하고, 소방안전교육과 화재예방 강화는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조한다. (* 의무시설: 급식소 K급 소화기, 합숙소 간이쓰러블러 등)

6.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협조

- 교육청은 2020년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각급 학교와 지원청이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향후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상호 협조한다.

7. 경남교육청 학생안전체협교육원 소방공무원 파견기간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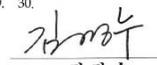
- 경남교육청 학생안전체협교육원에 파견된 소방공무원 3명은 본인 교수요원 역량강화와 운영방법 전수를 위하여 4개월 파견 연장에 합의한다. (* 당초 소방공무원 3명 8개월(2019.6.1.~ 2020.1.31.)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일 날부터 발생하며, 본 협약의 증명하기 위하여 각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의 보관한다.

2019. 9. 30.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

“경상남도-경남교육청 통합행정 구축 합의”

II. 통합교육추진단 출범

☑ 추진의의

전국 최초 도-교육청-대학 상설협력기구 설치

☑ 출범일자

'19. 10. 1.

☑ 추진방법

경상남도 도지사 직속기구로 『통합교육추진단』 설치 및 교육청 전문관·공무원, 대학 협력관 파견

- 통합교육추진단 조직도(6담당, 25명)

- 25명 중 경남도 직원 17명, 파견 8명(교육청 5명, 대학 3명)

* 교육청 5명(장학관 1, 장학사 2, 교육행정사무관 1, 교육행정주무관 1) 파견

** 대학 3명(경상대 1, 경남대 1, 인제대 1) 파견

조직 및 기능



교육혁신담당

미래교육 모델학교 구축
코로나19 대응
도-교육청-대학-시군 핫라인 구축
전국 최초 유학생 지원단 구성

대학협력담당

지역혁신 플랫폼 프로젝트 기획
상시적 대학협력 체계 구축 및
신규 대학협력사업 발굴

아이돌봄담당

경남형 아이돌봄모델 개발

학교공간혁신담당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구축
교과학점제 기반 홈베이스 및 학습카페 구축

II. 통합교육추진단 출범

사진/언론보도 자료



Ⅲ. 출범 2년의 성과

(1) 코로나19 대응 - 점검실적, 유학생 지원단

☑ 도-교육청-시군-교육지원청 학원 합동점검 지속 추진('20. 3.~ 계속)

- 대형학원, 일반 고시학원, 여름방학 대비 점검 등 시기별 교차 합동점검 실시(8,476개소)
- 2021년 수능시험 방역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및 특별 점검
-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TF 운영(도내 미인가 교육시설 14개소, 종교시설 20개소 등)

☑ 전국 최초 유학생 지원단 운영으로 유학생 코로나19 감염 최소화 기여

- 도-시군-대학 코로나19 대응 핫라인 구축 및 체계적 방역체계 확립
 ※ 사전 입국 수요조사, 입국-기숙사 격리 동선 기관 임무 부여, 방역매뉴얼 수시 점검 등
- 유학생 전담공무원 지정·운영(현장 파견, 건의·애로사항 접수·처리 등)



학원 합동점검



코로나 방역 온라인 영상회의



외국인 유학생 마스크 지원

Ⅲ. 출범 2년의 성과

(1) 코로나19 대응 - 온라인 개학, 경영안정지원금

☑ 도-교육청 온라인개학 대비 학습 공동지원 협약('20. 4. 8.)

- 방과 후 강사를 온라인 학습 및 긴급 돌봄 지원 인력으로 전환
 ※ 총 20억 원(도 10, 교 10) / 혜택 학생 수 : 44,018명, 방과 후 강사 일자리 지원 2,131명

☑ 도-교육청 휴원 학원 경영안정지원금 공동지원 협약('20. 4. 24.)

- 7일 이상 휴원한 학원 · 교습소 6,984개소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 총 70억 원(도 28, 교 28, 시군 14) / 전체 학원 · 교습소 8,309개 중 6,984개소 지원(84%)



Ⅲ. 출범 2년의 성과

(1) 코로나19 대응 - 초등학생 위생키트

☑ 초등학생 위생키트 공동 지원('20. 6.~7.)

- 도내 전 초등학생(192,670명) 대상 휴대용 방역·위생키트 지원
※ 총 19억 원(도 2, 교 17) / 휴대용 손 소독제·티슈·마스크 목걸이 줄, 위생수칙 등 5종 구성



Ⅲ. 출범 2년의 성과

(2) 공동협력사업 -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 '20년 2개소 영오초(고성군), 상주초(남해군), '21년 3개소 대의초(의령군), 유어초(창녕군), 유림초(함양군)
타 지역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이주 유도 ('20년 사업시행 결과 104명 이주, 학생 35명 증가)
 - 마을과 학교의 상생 도모를 위해 지자체(도, 시군)-교육기관(교육청, 학교)-혁신기관(LH) 참여
 - 임대주택 건립(41호), 빈집 정비(23동), 커뮤니티 공간 조성(4호) 등



- 빈집정비 및 임대 지원
-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 일자리 지원



-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 학교공간혁신 등



고성군-영오초 학생 교육활동 사진



고성군 임대용 공공주택 조감도



고성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설명회



남해군 작은학교 살리기 온라인 설명회

III. 출범 2년의 성과

(2) 공동협력사업 -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추진

- “학교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운영



도내 초·중학교
26교 대상
(‘20년) 12교
(‘21년) 14교



학교 유휴공간 활용
복합 문화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학교 내 지역사회 참여 커뮤니티 공간



창원 마산의신여중 복합문화공간 및
소통공간(345백만원)



밀양시 밀주초등학교 조감도



의령군 의령여중 조감도

III. 출범 2년의 성과

(2) 공동협력사업 - 홈베이스 및 학습카페 구축

☑ 고교학점제 대비 홈베이스 및 학습카페 구축 추진

- 사용자(학생) 참여 설계를 통한 학생 이동수업 준비공간 조성

- (홈베이스) 수업 준비공간, 개인 사물함 등 설치
- (학습카페) 개인학습과 토론학습 지원 공간



도내 일반고등학교
43개교 대상
(‘20년) 29교
(‘21년) 14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선제적 대응



미래형 학교 홈베이스
및 학습카페 구축



III. 출범 2년의 성과

(2) 공동협력사업 - 미래교실 모델학교

☑ 미래교육 모델학교 추진

- 스마트 학습환경 (무선인터넷 환경,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구축, 공간 재구조화) 구축
- 지능형 수업도구 활용 미래수업 일반화 모델 개발·확산

- “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환경 선제적 대응”



경남형
미래교육시스템
구축



도내 5개교
(’20년) 3교
(’21년) 2교



학교자치 강화+
수업혁신 연구+
학교단위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 에듀테크 도입 미래교실 수업시연회 개최(’20. 1. 13. 창원 컨벤션센터) ※ 5개 기업(삼성, LG U+, Google, MS, Apple) 및 도내 교직원 등 700명 참석

Ⅲ. 출범 2년의 성과

(3) 경남형 아이돌봄모델 개발 - 조직개편과 시행 추진

비 전
제안사업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만들기

초등학교 돌봄 초과수요 35개교 461명을 바탕으로 작성

- “우리마을 아이돌봄” (스테이션형태 돌봄, 학교-쉼터-학원-쉼터-집)
- 함께 아이 키우는 이웃사업 (행복교육지구 연계 이웃과 마을 중심의 돌봄)
- 학교공간 활용 마을돌봄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생활형SOC 공모 병행)

통합돌봄
체계구축

원스톱통합지원단

- 경남도 아동청소년과 신설('20.12월 조직개편)



우리마을
아이돌봄
추진

'21년 시범운영(10개소) → '23년 확대(23개소)

- 작은 도서관, 아파트 커뮤니티, 주민자치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등 참여



Ⅲ. 출범 2년의 성과

(4) 지역혁신 플랫폼 공모 선정

※ ('20년) 경남 단일형, ('21년) 울산-경남 복수형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공모 선정”

지역발전 선순환 구축을 위한 지역 주도 혁신인재 양성
지자체(경남,울산)·교육청·대학·지역혁신기관 등 77개 기관 협력
5년간 총 3,086억 원 투입 (국비2,090, 경남640, 울산, 256, 교육청100)

지역 주도 지역 산업육성 · 인재양성 공동체 구성 협력 - MOU 체결 '20. 6.



Ⅲ. 출범 2년의 성과

(4) 지역혁신 플랫폼 선정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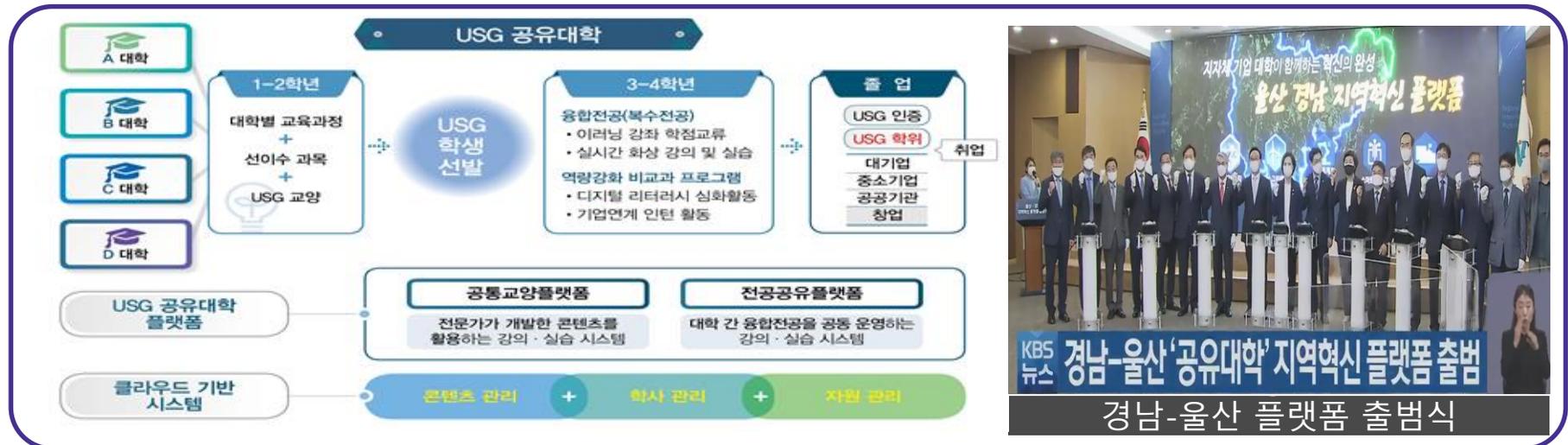
☑ <최초 시도> 미래형 공유대학 중심의 지역혁신 인재 양성 추진

- 지자체, 대학, 기업과 연계·협력하는 지역혁신플랫폼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 5대 핵심 분야 인재양성
 ①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②스마트 제조ICT, ③스마트공동체, ④미래 모빌리티, ⑤저탄소 그린에너지

☑ 인(In) 서울 대학과 경쟁하는 지역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경남-울산 공유형 대학 USG (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Ulsan) 구축”

- 공유대학은 “지역 다수의 대학 등이 함께 연합하여 운영하는 대학체제로 일반대학과 공동 학위(USG 인증) 부여하여 지역 기업이 요구하는 혁신인재 육성”



Ⅲ. 출범 2년의 성과

(4) 지역혁신 플랫폼 선정 - 교육청 참여

인력파견

총괄운영센터(사업 집행기관) 교육청 인력 2명 파견(장학사 1, 교육행정직 1)

예산투입

경남교육청 연간 20억 원 투입 : 고교인재 육성 과제(3개) 추진

· 8개 시·도 참여 4개 플랫폼 중 교육청 예산 참여는 경남이 전국 유일

추진과제

① 고교-대학 연계 스마트제조혁신 MTC(Meister Training Center) 구축

· 일반고·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 지역 전문대학 교육과정에 연계(110명 선발 교육)

② 고교학점제 연계 마이크로러닝 강의 콘텐츠 개발

· 고교 개설 어려운 교과과정의 대학 참여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7개 교과과정)

③ AI 고교-대학 연계 주니어 프로그램 지원

· AI 교육희망 학생 및 교원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5개 과정 및 '경남 아이톡톡' 탑재 운영)



III. 출범 2년의 성과

우수사례 선정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 지역주도형 지역혁신체계개편
성공모델 발굴과 동남권 확산



통합교육추진단
-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통합교육행정



**경남형 미래교실
모델학교 구축**



**공교육 강화·혁신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 마련**



**경남형 공유대학 중심
지역혁신 인재 양성**
- 경남 USG 공유대학 학위 인정 근거 마련
- 17개 대학 공동 교과과정 운영 등



**통합행정을 통한
마을과 작은 학교 살리기**

IV. 앞으로의 과제

추진 한계(애로사항)

☑ 애로사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 악화

- 코로나 19에 따른 직접 예산 2,400억 규모

▣ 경남도 재정상황

- ▶ '22년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 초과(1조 3,840억)
 - 세입예산액 11조 1,461억, 세출요구액 12조 5,3840억
- ▶ '21년 기준 외부 차입 (8,452억 원)
 - 외부 차입 6,485억, 내부거래 2,057억



☑ 극복방안

신규 시설비 사업 자제

- 시설투자 사업 현행 유지 ('21년) 125억 → ('22년) 112억

시군-마을 등 “작은 단위”의 협력모델 발굴(시군 공모사업 추진)

- 도 단위 통합교육행정 모델의 시·군 확산 추진(3억 원, 2개 시·군 시범 추진)

IV. 앞으로의 과제

통합교육행정모델의 시·군 확산

“도 차원의 통합교육행정 성공모델의 시·군 차원으로 확산”

✓ 2022년 시·군 교육협력사업 공모 추진

목 적

시군-시군교육지원청 간 교육협력사업 추진의 협력 강화를 위한 광역단위인 도-도교육청 연계 협의·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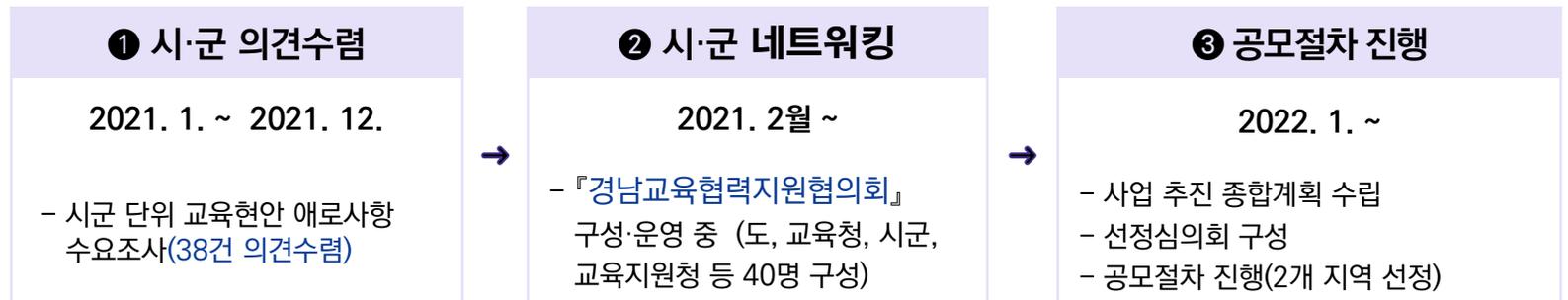
사 업 비

'22년 총 3억 원(도 1, 교육청 1, 시·군 1) * 2개 지역 공모 선정 예정(지역당 1.5억 원)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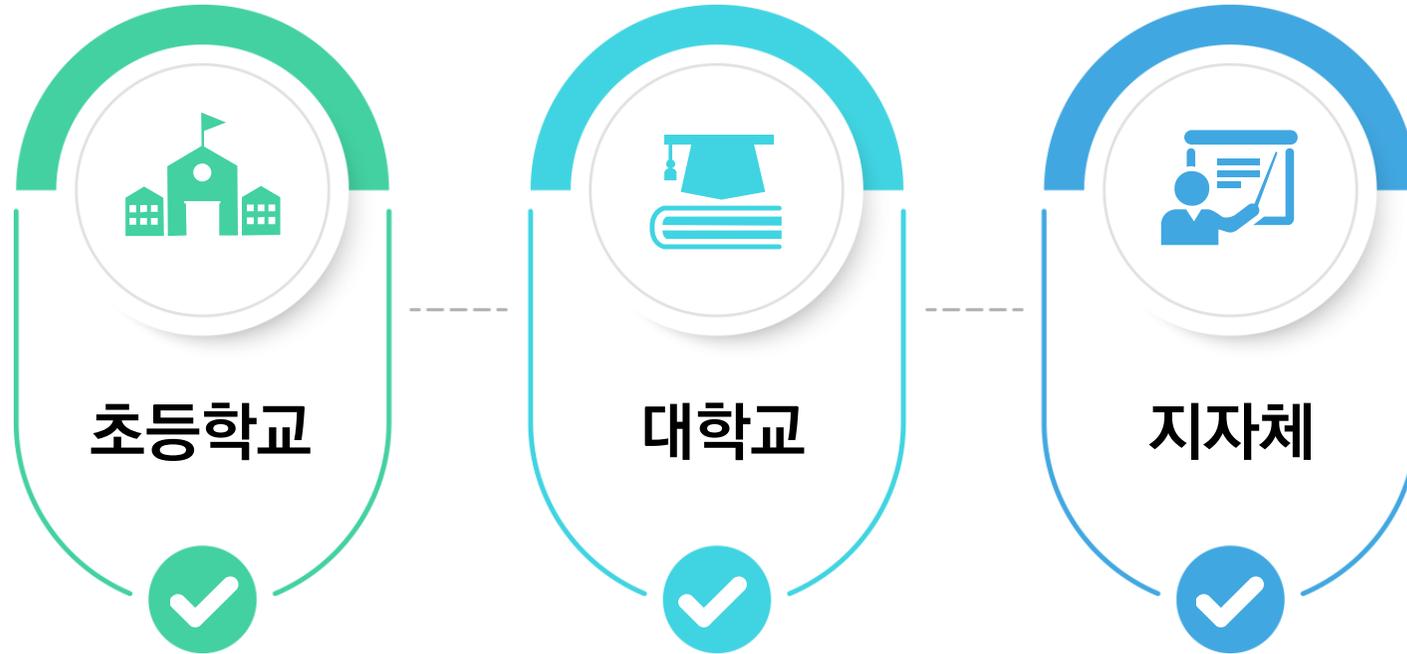
- 시군-교육청 공동 현안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 지자체-교육청 간 갈등조정 사업 해소 추진
- 행복교육지구(교육청-시·군 협력모델) 사업 연계 도 차원 지원

추진일정



IV. 앞으로의 과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재양성의 요람은 학교, 대학만이 아니다 !

지역교육 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손을잡고 해결!